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할 예술가

# 문학사 족적 남긴 문인들을 만나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인들이 탄생 100주년을 맞거나 사망 100주기를 맞는 해다.



시인 김춘수

김춘수 시인, 선우휘와 손창섭 소설가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었고, 모더니즘 대표 작가인 프랑수아즈 샤프랑 마르셀 프루스트는 올해 타계 100주기가 된다.

김춘수(1922-2004)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외우고 있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구절은 하나의 명언이 된 지 오래다.

시는 '꽃'을 모티브로 존재의 본질을 노래한다. 인간에 대한 본질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희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박해져가는 오늘날의 세대를 떠올리게 한다. '꽃'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애송되는 것은 시가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속성을 명징하게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22년 경남 충무시(현재 통영)에서 태어난 김춘수 시인은 비교적 유복한 유년을 보냈다. 어린 시절 바다는 김춘수에게 문학적 지양분이 됐다. 통영에는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다. 김춘수 외에도 유치환, 유치진, 윤이상, 박경리, 전혁림 등의 고향도 통영이다. 바다가 주는 원형적인 상상력과 역동성은 시인에게 원체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의 작품 활동은 '애가'를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부다 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을 출간하면서 이름이 알려진다. 특히 그는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탐색했으며 우리 문학사에 '무의미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 탄생 100주년 김춘수·선우휘·손창섭 프랑수아즈 마르셀 프루스트 사망 100주기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출간 100년

받는다.

선우휘(1922-1986)는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펼친 소설가다. 평북 정주군에서 출생한 그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했지만 소련 군정 치하에 환멸을 느껴 월남한다. 6·25가 발발하자 전방군단 유격대장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소설가 손창섭

작가로서의 출발은 1957년 '문학예술'에 '불꽃'이 당선되면서부터이다. 이 작품은 제2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실랑미 의식과 아울러 사실주의적 기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선이 굵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하소설 '노다지'는 구한말부터 6·25가 끝나는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를 다층적으로 들여다본 작품이다.

그는 1983년 예술원 회원이 됐으며 '오리와 계급장' '깃발 없는 기수' '짜릿골의 신화' 등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만년에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은 더러 대립 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소설 '임여인간'으로 유명한 손창섭(1922-2010)은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멸을 통해 신뢰를 추구했던 소설가다. 특히 그는 전쟁으로 뒤러린 상황에 던져진 인간의 고통을 그렸다. 그

에게 가장 어두운 공간을 그린 소설가라는 평이 뒤따르는 이유다.

작가로서의 출발은 1949년 단편 '알곶은 비'를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그의 문학은 자전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 곳곳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불우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의 대표작으로 '혈서(血書)', '인간 동물원 초' 등이 있으며, 현대 문학 신인상과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언급한대로 올해는 세계적인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 사망 100주기가기도 하다. 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7권)는 모더니즘을 확장한 작품이다.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닌 기억, 시간을 매개로 한 심리를 정치하게 그려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세기 많은 문인들이 프루스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문학적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문학동네는 오는 11월 프루스트의 미발표 원고를 묶은 소설집 '미지의 교신상태 외' (가제)를 100주기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아일랜드가 낳은 최고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1882-1941)의 '율리시즈'가 출간된 지 100주년이 된다. 더블린의 광고업자 블룸이 하루 동안 겪는 사건을 의식에 흐름에 맞춰 풀이한 실험 소설로,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역시 문학동네는 오는 11월 작품을 출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이드로컬처'

## '아름다움과 논리'

### 김형숙 개인전, 2월10일까지 주안미술관

수학적 규칙이 주는 아름다움. 김형숙 작가 개인전이 오는 2월10일까지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에서 열린다.

'美와 논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세모', '자연', '새', '나선형 테이블과 이글루를 따라 걷는'을 테마로 영상과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새'는 댄서 로렌 우튼의 정적인 퍼포먼스가 포함된 영상작품이다. 수학적 이론인 피보나치 수열 연구 등 오랫동안 지속해온 기하학 연구 작업을 확장·변형한 작품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춤의 동작과 새의 움직임을 결합한 작품이다. 새는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동물로 표현되며, 무용수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자연'에서는 토양의 질이 악화된 지역이나 작품을 키우기 힘든 지역에서도 신선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경재배'를 소재로 '만들어지는 자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나선형 테이블과 이글루를 따라 걷는'은 이탈리아 작가 마리 오 메르츠의 '나선형 테이블'과 '이글루'라는 작업을 자신만의 시각에 따라 재해석, 도큐먼트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기하학 연구에서 시작된 시리즈물이다.

그밖에 '세모'에서는 4차원으로 표현된 공간이 주는 무한성에 집중하며 수학적 규칙과 재배열을 통해 시공간을 재구성한다.

조선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미술대학 디플롬 미디어학과와 마이스터 술러 영화학과 졸업한 후 독일과 한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만나다

- 니콜로 파가니니 탄생 240주년
- 세자르 프랑크 탄생 200주년
- 인상주의 드뷔시 탄생 160주년

없었다고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파가니니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다.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슈만, 쇼팽, 리스트, 브람스 등도 그의 연주를 듣고 감탄했다고 전해지며, 그의 대표곡으로는 '24개의 카프리스'와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라 캄파넬라' 등이 있다.



클로드 드뷔시

1954년 시작된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는 지난 2015년 양인모가 1위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정누리가 2위를 차지했다.

오는 11월에는 파가니니 탄생 240주년 기념 공연 '리스트와 쇼팽이 추억하는 파가니니'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대중적인 작곡가는 아니지만 베토벤, 브람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세계 3대 바이올린 소나타'로 잘 알려진 프랑크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다.

당대 생상스와 더불어 뛰어난 오르가니스트로 명성을 떨치던 그의 작품으로는 '생명의 양식'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교향곡 D단조', '현악 4중주 D단조' 등이 유명하다. 특히 이중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는 절친한 사이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의 결혼 축하 선물로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본 윌리엄스는 피겨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2006~2007시즌) 프리스케이팅의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종달새의 비상'의 작곡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본 윌리엄스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조지 메러디스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이 음악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으로 1920년 초연된 이후 관현악과 바이올린을 위한 편성으로 작곡돼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주되고 있다. 이밖에 '런던교향곡', '바다의 교향곡', 관현악곡 '탈리스의 주제에 의한 환주곡(幻奏曲)' 등을 작곡했다.



세자르 프랑크

스크라빈은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쇼팽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의 쇼팽'이라고 불릴만큼 피아노 소품을 많이 썼는데, 1888년에 '24개의 전주곡 Op.11'을 쓴 이래로 84개의 전주곡을 작곡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창조적 영혼의 희열을 그린 교향곡 제4번 '법열의 시'가 있다.

'달빛'으로 유명한 드뷔시는 186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마네, 등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화성과 음색의 곡들을 작곡했다. 대표작으로는 마테를링크 원작에 의한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교향 모음곡 '봄', 교향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바다' 등이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 2021년은 생상스 서거 100주기,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었다. 음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연주회가 열려 클래식 애호가들을 즐겁게 했다. 2022년에는 어떤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니콜로 파가니니

제노바 출신인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는 올해 탄생 240주년을 맞았고, 별기에 출신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1822-1890)는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됐다. 또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1862-1918)는 탄생 160주년을,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1872-1958),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스크랴빈(1872-1915) 등은 탄생 150주년을 맞았다.

신에게 영혼을 팔아 재능을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